

월드컵 대비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한 화학업체 경영자 간담회 실시



노동청별로 간담회를 연속 개최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안전한 월드컵 개최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 협회에서는 축적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화학업체 공정안전 관리(PSM) 업무 지원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3월 6일 63빌딩 엘리제홀에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SK, LG화학 등 대형 화학업체 대표이사과 이흥지 회장(대한산업안전협회) 및 관련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조찬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월드컵 등 4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화학공장의 시설 및 공정에 대한 변경, 개·보수 등으로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 등과 같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모임이었다.

방용석 장관은 「월드컵 기간 중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규제완화조치로 침체상태에 있던 공정안전안전관리 활동을 사업장 스스로 활성화하고, 안전·보건관리 수행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를 모기업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 등을 참석한 대표자들에게 당부하였다.

특히,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문화를 강조하며,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에 화학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앞장 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울산·여수 등 화학공장 밀집지역과 전국 6개 지방

안전협회 울산지회 보건협회 울산지부와 업무협력 강화



여 업무협력을 증대하기로 협의하였다.

안전협회 울산지회(국장 이성근)는 3월 8일 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회의실에서 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국장 안명호)와 기술교류 및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지원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 간부 직원 13명이 참석하여 향후 업무협력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은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공동개최, 안전보건대행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실시 및 안전보건교육 협력 추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관리사업장의 업무지원 기술력 향상 등을 협의하고, 앞으로 격월로 모임을 정례화하

안전협회 2002년 임금협상 마무리



안전협회는 지난 3월 16일 2002년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하고, 이흥지회장과 이응구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하나되어 재해예방사업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의 특징은 노조전임자가 재해예방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그 임금을 활용하여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산업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연초 한마음 연수교육에 이어 전직원의 단합된 힘으로 안전 협회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

광주 금호산업 맞춤형교육 실시

안전협회 광주지회(국장 김영옥)는 금호산업 관리감독자 360명을 대상으로 무역회관 5층 교육장에서 3월 15일에서 4월 19일까지 총8회에 걸쳐 주문식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실습과정(윤비호 물리치료사)과 응급처치과정(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 김미선 교수)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사내 사고분석과 2002년도 안전관리계획(환경안전과 조강조 과장)과목도 편성하여 안전관리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관심을 높였다.사업장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주문식 맞춤형교육은 전국 각 사업장으로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노사평화를 위한 국민 마라톤대회

노동부에서는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노사평화를 위한 국민마라톤 대회를 2002. 4. 7(일)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전국의 사업장의 노·사를 비롯한 온 국민의 소리없는 응원을 우렁찬 함성으로 모아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노·사 평화를 위해 국민마라톤을 개최한다

1)일시=2002년 4월 7일(일)오전 10시

2)장소=올림픽공원->남부순환로->송파대로->올림픽공원

3)참가부문 및 자격

▽참가부문=10km, 5km

▽자격=기업의 노·사, 근로자, 일반시민

▽참가비=10km(1만5천원), 5km(1만원)

▽제한시간=10km(2시간), 5km(1시간)

대중교통 운전자 음주·마약 여부 집중 감독

서울시에서는 택시,버스기사 등 영업용 차량운전자에 대해 음주나 마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며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이 실시되는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책이 강화된다.서울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선진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택시, 버스기사들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한편 최근 마약 남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 외관상으로 환각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하였다.

또 대형사고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아울러 교통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위해 어릴 때부터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지정, 시내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사고예방법 및 안전교육 내용 등을 콘텐츠로 하는 사이버 안전교실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